

‘2025 화순고인돌가을꽃축제’ 10월 17일 개막

“가을꽃 만개한 선사 시대 속으로”... ‘고인돌 유니버스, 움직이는 공룡 등’ 새로운 콘텐츠로 재미 더해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오는 10월 17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 화순 고인돌 유적지 일원에서 ‘2025 화순 고인돌 가을꽃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가을꽃이 만개하다”라는 뜻의 ‘가을만화(滿花)’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화순 고인돌 유적지의 광활한 대지에 만개한 코스모스, 해바라기 등 다채로운 가을꽃의 향연과 함께 축제의 정체성을 강화한 새로운 볼거리와 체험프로그램으로 관람객을 맞는다.

올해 축제의 가장 큰 변화는 ‘고인돌(DM) 유니버스’의 본격적인 도입이다. 기존의 가을꽃 중심의 축제에서 벗어나, 고인돌 유적지라는 역사적 공간의 의미를 살린 청동기 시대 관련 체험을 대폭 확대했다.

관람객의 MBTI를 활용한 ‘청동기 시대 이름 짓기’, 화순에서 출토된 보물인 팔주령 유물 모양 틀을 이용한 ‘팔주령 비누 제작’, 팽배바위 형상의 ‘고인돌 빵 만들기’ 등

현대적 재미를 가미한 이색 체험들이 가득하다.

특히, 어린이 동반 가족 단위 관광객을 위해 ‘알파카 체험존’과 ‘움직이는 공룡 전시’를 새롭게 선보인다.

중앙면 대신리 공원 초입부 잔디광장에 들어설 알파카 체험존은 어린이 키높이에 맞춘 알파카를 선별해 ‘먹이주기 무료 체험’을 진행하고, 물멍존 일대에 배치될 16m 크기의 브라키오사우루스와 6m의 티라노사우루스 등 살아 움직이는 듯한 공룡 3종은 아이들의 상상력 자극뿐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특별한 볼거리를 제공해 축제에 활기를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흥겨운 축제를 위한 공연 프로그램도 한층 다채롭게 꾸려졌다. 축제의 시그니처 공연인 ‘DM(Dolmen Music) 콘서트’는 발라드, 레트로, 댄스, 트롯 등 세대별 맞춤형 가수를 초청해 총 4회에 걸쳐 진행된다.

또한 도곡 주무대와 중앙 잔디광장에서는 축제 동안 관현악, 밴드, 지역 예술인

공연 등 총 64회의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진다.

이번 축제에서는 ‘초대형 꽃 조형물’뿐 아니라, 기존의 고정관념을 깬 ‘황금 고인돌’과 형형색색의 ‘컬러 고인돌’이 설치되어 관람객들에게 최고의 포토존으로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관람객 편의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돋보인다. 입장료 5,000원은 전액 화순사랑상품권으로 환급되어 축제장을 비롯한 화순군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다.

방문객들의 주차 및 관람 편의를 위해 2,000명 이상의 대규모 임시 주차장을 확보하고, 그늘막과 쉼터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모든 음식 부스에서는 다화용기 사용을 의무화하여 친환경 축제로 나아간다.

축제 부대행사로오는 ▲제2회 도곡 농특산물 대축제 ▲2025년 화순군 전국 청소년 댄스 경연대회 ▲제22회 화순 전국국악대제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이번



축제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 방침이다.

화순군 조형체 관광체육실장은 “올해 가을꽃 축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이라는 고유의 자산에 재미와 상상력을 더해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했다”고 말했다. 화순/김종환 기자



영암의 추석, 전통 장작가마가 풍성함 더한다 10/2~5일 추석연휴 맞이 ‘영암도기 장작가마 소성 체험행사’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추석 연휴를 맞아 10/2~5일 영암도기박물관 영암읍에서 ‘영암도기 장작가마 소성 체험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국가사적 제338호 ‘구립도기가마터’의 역사적 가치를 계승하고, 전통 장작가마의 불꽃이 빚어내는 도기의 아름다움을 체험하는 기회를 귀향객과 관광객, 영암군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

특히, 도기 소성 후인 16일 오후 2시에는 장작가마에서 완성된 도기를 꺼내는 출요(出窯) 행사로 도기 완성작을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다.

영암의 전통 장작가마 소성 방식은 고온에서 불과 나무재가 빚어내는 부정형의 흔적을 도기 표면에 남겨 특별한 질감과 색감을 짓게 한다.

이는 일반 가마로는 재현할 수 없는 예술적 요소로 영암도기 비색(秘色)의 비법으로도 알려져 있다.

이번 소성체험은 고온 유약그릇인 시유도기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생산한 구립지역의 역사와 장작가마 소성의 기술력을 느껴볼 수 있는 예술·문화 체험의 장이다.

행사 기간 일반 관람객을 위한 다양한 무료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된다.

매일 오전9~저녁6시 장작에 소원을 적어 불 속에 던지며 염원을 비는 ‘소원성취 장작 태우기 체험’, 오전10~저녁9시 만만과 힐링의 ‘장작가마 불멍 체험’이 진행된다. 체험은 누구나 현장 접수로 할 수 있고, 소성이 종료되는 5일 체험 접수는 정오까지만 받는다. 영암/김희선 기자

전남 구례군은 9월 19일(금)부터 21(일)까지 3일 간 구례군 지리산역사문화관일원에서 열린 「2025 구례 탄소중립 흙 살리기 박람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전라남도와 구례군이 주최하고 탄소중립흙살리기박람회추진위원회가 주관했으며, 김순호 구례군수, 강위원 전라남도 경제부지사, 장길선 구례군의회의장을 비롯해 이계호 국회의원, 도·군의원, 관계 기관장 등 주요 내빈이 참석했

구례군, ‘2025 구례 탄소중립 흙 살리기 박람회’ 성료

다. 우원식 국회의장, 추미애 국회의원, 신정훈 국회의원, 권항엽 지역구 국회의원, 정영호 국회의원은 현장을 찾지는 못했지만 영상 메시지를 통해 축하 인사를 전하며 박람회의 의미를 더했다.

행사 기간 동안 약 4,000여 명이 참여해 구례의 흙 살리기와 탄소중립 의제에 대

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국 지자체 최초로 탄소중립과 흙을 주제로 한 박람회로 올해 두 번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풍성하게 꾸며졌다. 개막식은 ‘흙을 살리고 지구를 구하는 구례’를 주제로 김형성 작곡가와 TBN 어린이합창단의 공연으로 막을 열었고, 이어 탄소중립 실천과 생태농

업의 의지를 담은 선언문 발표와 주요 내빈의 개막 퍼포먼스가 진행돼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주제관에서는 흙이 생태계와 인간의 삶에 미치는 중요성을 알기 쉽게 체험할 수 있었으며, 글로벌 시민과 함께한 토크쇼는 흙의 소중함과 탄소중립 실천의 필요성을 다양한 시각에서 나누며 눈길을 끌었다.

구례군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박람회를 대한민국 대표 생태축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구례/한정호 기자

장흥군은 22일 부산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쉽고 재미있는 도로명주소 디지털교과서 활용 교육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번 교육은 메타버스 플랫폼 기반의 디지털 교과서 ‘플레이스비’를 활용해 도로명주소에 대해 이해를 높이

장흥군 디지털교과 ‘플레이스비’ 활용한 도로명주소 홍보

메타버스 플랫폼 기반 디지털 교과서 ‘플레이스비’ 활용 교육

는 참여형 프로그램이다. 플레이스비는 행정안전부가 개발한 가상 세계에서 직접 도

시를 건설하며 도로명주소 체계에 대해 배우는 교육용 메타버스 프로그램이다.

군 관계자는 “가상공간인 메타버스를 활용한 실습형 교육으로 학생들의 이해도와 관심을 크게 높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 방법을 통해 학생들이 도로명주소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군 계몽

장성군이 22일 산림청을 방문해 김인호 산림청장과 면담을 갖고, 산림분야 국고사업 추진을 건의했다.

이날 김한중 장성군수와 관계 공무원 등 10여 명은 산림청장에게 △국립아열대 자생식물원 조성 △대한민국 명품숲기념관 건립 △국립잔디연구소 설립 △나라꽃 무궁화 대축제 등을 위한 국고 지원을 요청했다.

‘국립아열대 자생식물원’은 아열대 자생식물의 보존 및 연구를 담당하는 국가

장성군, 22일 산림청 방문... 국고사업 건의

‘국립아열대 자생식물원’ 조성 등 국고지원 요청

시설이다. 전시온실, 아열대 자생식물 보존원, 작물재배원 등 보존원, 교육센터 등으로 구성된다.

‘대한민국 명품숲기념관’은 산림청이 ‘100대 명품숲’, ‘22세기를 위해 보존해야 할 아름다운 숲’으로 선정한 장성 죽령산 편백숲에 조성된다. 조립역사관, 명품숲기

념관, 산림홍보관 등을 갖추게 된다.

‘국립잔디연구소’는 기후 변화에 강한 잔디 품종 개발 등 세계 잔디산업 선도를 책임질 연구 시설이다. 국내 잔디 생산량의 40%를 책임지고 있는 장성군에 설립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중론이다.

‘나라꽃 무궁화 대축제’는 46개 품종 1

만 2000여 주의 무궁화가 식재되어 있는 장성무궁화공원에서 열리는 축제다. 장성군은 산림청 공모 선정을 통해 지난 8월 첫 번째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다.

김한중 군수는 “장성의 자랑인 산림자원의 가치를 증진시켜 자연을 살리고 지역 경쟁력을 높일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국고사업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장성/황해연 기자

완도군, 제10회 장보고항상 어워드 시상식 9월 28일 개최

완도군은 ‘제10회 장보고항상 어워드’ 시상식을 오는 28일 청해진스포츠클럽에서 개최한다.

시상식은 ‘21세기 장보고 발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재외 동포 경제인 가운데 한민족 정체성 함양과 글로벌 경제 공동체 구축에 기여한 인물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장보고 대상’은 스페인에서 원양어업 및 무역 분야에서 큰 성공을 거둔 권영호 인터볼고 회장이 만장일치로 선정됐다.

아울러 국회의장상에 최영철 사나그룹 회장(케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에 김종순 JS 홀딩스 회장(영국),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에 전미자 아카키코 회장(오스트리아), 산림통상자원부 장관상에 박원규 벡스트레이딩 회장(폴란드), 해양수산부 장관상에 하순섭 한화 그룹 회장(팔라우) 등 총 6명의 수상자가 선정됐다. 시상식에는 장보고항상 수상자들의 창업 성공 스토리를 다룬 인공지능(AI) 감

사문 공모 시상식, 항상-모국기업인 상생 파트너십 대회, 수출 상담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29일에는 ‘제4회 장보고-최경주배 자선 골프 대회’가 영암 아크로컨트리클럽에서 열리며 수상자와 지역 인사들이 스포츠를 통해 우정을 나누고 기부와 나눔의 가치를 실천할 예정이다.

한편 장보고항상 어워드는 2016년부터 10년간 총 23개국 55명의 수상자를 배출했으며 장항상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특산품 해외 판로 개척 등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김덕룡 이사는 “장보고항상 어워드는 비즈니스, 문화, 힐링을 아우르는 세계 유일의 재외 동포 경제인의 교류와 협력의 장으로 자리 잡았다”면서 “앞으로도 한민족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하고 모국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완도/장선우 기자

